

경상북도, 동북아자치연합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대표단 파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19.12.09.(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안일보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에 대표단 파견	
2	신문	대경일보	경북도, 산동성에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환동해 해양산업 발전 위한 중요한 초석 다질 것	
3	신문	경북일일신문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4	신문	일간경북신문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5	온라인	브레이크뉴스	경북도, 동북아자치연합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대표단 파견	
6	온라인	중앙뉴스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7	온라인	드림저널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8	온라인	세계타임즈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9	온라인	내외뉴스통신	경북도, 환동해 해양산업 국제교류 초석 다져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에 대표단 파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NEAR' 회원단체 대표 참석
환동해 해양산업 발전·협력 위한 초석 다져

경북도는 지난 4~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산동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할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

환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산동성은 부성급 위관청과 NEAR 김옥재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관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기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이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우동 기자 gd7386@yna.com

대경일보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002면 종합

道, 中에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환동해산업연구원 전문가 등
산업발전 중요한 초석 다질 것

경북도는 지난 4~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산동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해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발표 및 의견을 나눴다.

산동성은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관심을 보였다.

경북도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관 수석 연구원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경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설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1996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이다.

동북아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과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교류협력 하면서 공동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임태 기자 sinam77@naver.com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경북도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산동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산동성은 부성장 위귀안(于国安)과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초연설을 통해 경상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日刊경북신문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008면 종합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경상북도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산동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산동성은 부성장 위귀안과 NEAR 김옥채 사

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상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초연설을 통해 경상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브레이크뉴스

BreakNews

경북도, 동북아자치연합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대표단 파견

오주호 기자 phboss7777@naver.com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상북도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市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국제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시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국제포럼에서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C) 동북아연합NEAR사무국 제공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양 바이오와 건강식품 개발, 해양탐사 장비

및 심해 자원 개발, 해양생물 추출물의 농업 분야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포럼을 주관한 산둥성은 부성장 위궤안(于?安)과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상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이번 포럼의 기초연설을 통해 경상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산둥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는 지난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이어가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기사입력시간 : 2019년 12월06일 [20:40:00]

인쇄하기



인쇄

HOME > 사회 > 지역

경북도, 산둥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박미화 기자 | 승인 2019.12.08 22:18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사진=경북도 제공)

산둥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산둥성은 부성장 위궤안(于国安)과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상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초연설을 통해 경상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화 기자 기자

인쇄

경북도, 산둥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환동해 해양산업 발전 중요한 초석 다져

기사입력시간 : 2019/12/08 [12:15:00]

김영호 기자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경북도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산둥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포럼을 주관한 산동성은 부성장 위궤안(于国安)과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초연설을 통해 경상북도의 해양 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동해 해양산업 발전 중요한 초석 다져

[세계로컬핫뉴스] 경북도, 산둥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이창재 기자 news@thesegye.com | 2019-12-08 13:35:11



[경북=세계타임즈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산둥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산동성은 부성장 위귀안(于国安)과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상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상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경북도, 환동해 해양산업 국제교류 초석 다져

김영삼 기자 | 승인 2019.12.08 19:15

중국 산둥성에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4일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청)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산둥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지난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산둥성은 부성장 위귀안과 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초연설을 통해 경북도의 해양산업을 설명하고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NEAR은 지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hn032@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삼 기자